

Swift 諷刺文學에서의 Wordplay

—A Tale of a Tub을 中心으로—

許 明 洙

I. INTRODUCTION

IV. PUN

II. SWIFT & LANGUAGE

V. CONCLUSION

III. NEOLOGISM

I. INTRODUCTION

Swift를 논할 때 우리는 satire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의 satire가 英文學이란 範疇를 벗어나서 世界文學史的인 위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時代와 場所를 초월해서 같은 意味를 찾을 수 있는 共感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의 作品들이 어떤 의미와 價値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나타난 言語라는 매체의 훌륭한 역할에 기인한다. 어느 作家의 作品도 言語라는 매체를 使用하기는 마찬가지지만, Swift는 言語, 특히 과도기적인 英語의 發展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는데, 그것이 作品 속에선 ironical하게도 기묘한 wordplay로 나타나 그의 satire에 더 생동감을 불어넣어주며 강한 message를 전달해주고 있다.

그의 이러한 言語에 대한 관심은 Trinity College에 修學中이던 1682-5년 사이에 耽讀했으리라 믿어지는 Homer, Virgil, Horace 등의 古代作家들과, Descartes, Locke, Hobbes 등의 現代作家들의 作品과 그들의 研究에 의해 비롯되었으며, 또 당연히 그들에게서 받은 影響은 클 수밖에 없었다.¹⁾

大學을 卒業한 후 親戚之間인 William Temple卿이 이개입되었던 古代作家(Ancients)와 現代作家(Moderns)의 優越性에 대한 論爭에 관심을 갖고 얼마뒤 執筆한 *The Battle of the Books*(1704), 이와 같이 收錄된 *A Tale of a Tub*에서 이미 그의 뛰어난 Wordplay가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뒤에도 그가 Tory Pamphleteer로 알려지던 1710년을 전후해서 여러가지 論說이나 essay등을 통해 言語에 대한 자신의 立場과 관심을 발표하는데까지 發展한다.

그의 여러가지 다양한 기교를 보여주고 있는 wordplay는 Swift의 Satire를 가장 效果의으로 만들어준 중요한 要因中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wordplay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의 satire를 理解할 수 없으며, 역으로 그의 wordplay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의 satire를 理解할 수 없다.

諷刺文學이 'ideal'과 'real'의 相衝되는 矛盾을 表出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役割로 간주한

1) 그가 Dublin에 있는 Trinity College에서 수학중일때 성적표에 나타난 것을 보면 Physics(male), Thema(Neglig), Greek and Latin(bene) 등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言語, 특히 古典語에 관심을 가졌다. Cf. Irvin Ehrenpreis, *The Personality of Jonathan Swift*, (Cambridge, 1958), p.279 & Appendix E.

다면 그 매체인 言語는 그 gap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수단이 된다. Vossler가 어떤 時代의 文學을 理解하려면 當時의 言語를 分析하는 것이 政治·宗教·社會 등을 分析하는 것 이상으로 效果의이 될 것이라고 喝破했지만,²⁾ Satire는 특히 그런 性格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 作家의 言語에 대한 충분한 研究와 이해가 뒷바침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言語學的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 作家의 Technique을 研究하려는 philological approach가 Blackmur 등에 의해 發展되고 있다.

Swift가 Standard English를 정착시켜보려는 노력을 보인 반면에 그의 作品 가운데는 그것에서 벗어난 것들이 많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의도적인 言語의 파괴, 文字나 符號들을 이용한 多樣한 技巧, 外來語와 新語들의 導入, slang, jargon등의 插入, 戀人 stella에 보낸 편지에 나타난 little language 등 表面上으론 그의 이러한 wordplay가 二律背反의이고 矛盾 투성이인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그의 satire를 매우 效果의으로 만들어 주고 있으며, 그의 satire의 특징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A Tale of a Tub을 中心으로 Swift의 言語觀과 wordplay가 어떤 相互聯關性을 갖고 그의 諷刺文學에 나타나고 있으며, 또 그 表現樣式이 어떻게 效果의으로 使用되고 있는가에 觸점을 맞추고자 한다.

II. Swift & Language

王政復古 以來 Augustan Age에 이르기까지 英國의 科學·哲學·言語·文學은 서로 連관성을 갖고 發展하게 되는 양상을 띤다. Royal Society(1662)가 設立된 이후로 Boyle, Newton 등의 學者들이 輩出되고 Copernicus, Kepler, Galileo등의 새로운 自然科學이 導入됨에 따라 점차 古典의이고 傳統의인 自然觀과 宇宙觀이 崩壞돼가고 神과 人間과의 縱的인 關係에서 理性과 人間, 또는 自然과 人間과의 橫的인 關係의 상태로 발전하게 되어 沉神論的인 自然神觀인 Deism이 出現하게 된다.³⁾ 여기에서 Homer나 Virgil등의 古代作家들을 모범으로 삼는 古典主義가 꽃을 피우게 되어 自然—秩序—理性—古典主義의 連관關係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文學的인 흐름과 마찬가지로 17세기 末부터 言語에 대한 관심도 自然과 理性에 連관을 지어 생각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言語라는 것은 —특히 名詞의 경우에 더 그러하지만— 自然을 모방하는 것이며, 더 엄격히 말하자면 自然秩序를 모방하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言語는 단순히 도구에 그치는 것(instrumental)이 아니라 言語自體가 構成要素를 이룬다는 (constitutive)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言語가 思想의 無限한 宇宙로, 그 法則(grammar)은 日常生活의 行動指針이 되는 길잡이 役割을 하는, 이론과 言語의 昇格化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Descartes의 思想처럼 理性的 動物(rational animal)은 곧 言語的 動物(linguistic animal)이 되어야 했다. Chomsky도 power of instinct와 rational thought의 차이가 바로 動物과 人間과를 구별해주는 중요한 要因이란 점을 지적한 바 있지만⁴⁾, 이것이 人間이 여타동

2) Karl Vossler, *Gesammelte Aufsätze zur Sprach Philosophie*(Munich, 1923), p.37. Cf. René Wellek & Austin Warren, *Theory of Literature*(Penguin Books, 1966), p.174.

3) 傳統的인 基督教에서 갖고 있는 '唯一神'이나 '創造主'등의 概念이 Deism에서는 사라지고 自然自體에서 人間과의 서로 連관되는 信仰心을 強調한다. 이러한 경향은 Swift에게도 미쳐서 A Tale of a Tub에서 宗教에 대한 辛辣한 Satire가 가능하도록 만든 背景이 되었다. Deism에 대해선 Cf. Myung-Soo Hur, *The Analysis of Jonathan Swift's Satire in His Prose and Poetry*,(Seoul, 1977), pp.23ff.

4) Noam Chomsky, *Cartesian Linguistics: A Chapter in the History of Rationalist Thought*(New York, 1966), pp.29ff.

물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이며, 言語는 動物이 아닌 人間에 의해 使用되기 때문에 instinctive한 면보단 reasonable한 면을 갖는다는 생각이 高潮되어 왔다. 이러한 생각들은 Neo-Classicism의 reason에 대한 중요성의 강조와 아주 일치하는 것들이다.

Shakespeare 以來 英語가 Latin語나 프랑스語 못지않게 文學的인 言語로서의 可能性이 인식되어졌고, 이에 따라 英語의 精確화와 표준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18세기 초까지 Standard English에 대한 관심에 비해서 Grammatical usage에 대해 정통성을 갖고 나설만한 입장이 될 사람은 없었다. 심지어 Stackhouse같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할 정도였다.

“We write by guess, more than any stated rule, and form every man his diction, either according to his humour and caprice, or in pursuance of a blind and servile imitation.”⁵⁾

이런 점이 order를 중시하던 文學的 背景에 적합할 리 없었고, 이러한 矛盾을 그냥 방치해 두지는 않았다. 같은 Indo-European 語群에 속하는 Latin語의 모범을 따르더라도 18세기 중반 Johnson의 Dictionary(1755)가 나오기 전까지 여러사람들에 의해 Standard English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했다. Swift도 이중에 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그는 theory的인 것보단 주로 Word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正確한 위치에 적절한 單語(proper words in proper places)’가 중요한 관심거리였고 세련되고 교양있는 言語를 驅使해야 훌륭한 상대자(men of good Company)로서 간주했다. Swift가 제기한 當時 言語에 대한 問題點들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polysyllabic dignity의 缺如에 대한 것이다. 예컨대 reputation, mobile, penultimate를 rep, mob, penult 등의 monosyllable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지적인데 주로 名詞에 관한 것들이다. Baugh는 Swift가 오늘날의 taxi, phone, bus, ad 따위의 單語에 대해서도 반발감을 보일지도 모른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⁶⁾

둘째, 詩에서 자주 나타나는 contracted verb, 즉 drudg’d, disturb’d, rebuk’d, fledg’d 등과 發音대로 표기한 contracted verb 즉, hav’n’t sha’n’t, coodn’t, woodn’t 따위에 대한 지적이다.

Of these Spellings, the Publick will meet with many Examples, in the following Book: For instance, can’t, hav’n’t, sha’n’t, didn’t coodn’t, woodn’t, isn’t, e’n’t; with many more.⁷⁾

여기서 지적된 can’t, isn’t등은 오늘날도 회화체에선 그대로 굳어진 것들이고, sha’n’t나 hav’n’t 등은 shan’t나 haven’t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Swift에게 있어서 monosyllable화 되는 것은 “the disgrace of our language(English)”⁸⁾로 여겨졌었다.

5) Thomas Stackhouse, *Reflections on the Nature and Property of Language in General, on the Advantages, Defects, and Manner of Improving the English Tongue in Particular*, (1731), p.187.

6) Albert C. Baugh, *A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1971), pp.311-2.

7) Swift, *Polite Conversation in Swift's Polite Conversation*, ed. E. Partridge(London, 1963), p.101. 여기에 표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당시에 사용된 것으로는 ‘an’t(am not), a’n’t(are not), Let’n(Let him), to’s Face(to his Face)등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Cf. N.F. Blake, *Non-Standard Language in English Literature*. (London, 1981), pp.100-101.

8) Jonathan Swift, *Tatler No. 230*(1710) in *Jonathan Swift* ed. Denis Donoghue(Penguin Books, 1971), p.35.

세째, *sham, banter, bully* 등 당시에 유행되던 Vulgarism에 대한 것이다. 특히 敎育을 받은 사람이나 심지어 聖職者까지도 어떤 야비한 俗語나 卑語를 사용하는데에 대한 지적이다. 특히 그런 언어를 설교단 위에서까지 사용하는 젊은 牧들을은 Swift는 'young sophisters'라고 부르기조차 서슴치 않는다.

"Then in their sermons they use all the modern terms of art, *sham, banter, mob, bubble, bully, cutting, shuffling and palming*, all which, and many more of the like stamp, as I have heard them often in the pulpit from such young sophisters, so I have read them in some of those sermons that have made a great noise of late."

넷째, 新語(new word)의 氾濫에 대한 지적이다. Swift는 Latin語나 佛語의 導入에 대한 특별한 반발을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그들 언어에서 온 것처럼 위장된 新語나 근원을 알 수 없는 어설픈 新語에 대해선 강한 반발을 보였다. 그러한 新語들은 言語를 끊임없이 流動狀態(a constant state of flux)로 몰아넣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본 것이다.

다섯째, 低俗한 方言(low dialects)에 대한 지적이다. 이것은 A Dialogue in the Hibernian Style에서 Scots와 Irish에서 발음상 느끼는 'roughness'와 'vulgarism'에 대한 점들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Irish의 단어와 發音에서 느끼는 감정은 그가 원하던 Oxford 大學에 못가고 經濟的인 문제로 Ireland의 Dublin에 있던 Trinity College에 가게 됐을 때 갖던 불만족감과 일치한다. 그는 늘 "I'm not of this vile country, I am an Englishman"¹⁰이라고 말하길 서슴지 않았는데 Ireland를 'this vile country'로 표현한 것만 봐도 짐작이 간다.

이상과 같이 Swift가 지적한 linguistic corruption은 요컨대 단어들의 表記, 語源, 品位 및 發音에 관한 것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Swift가 言語에 대해 매우 保守的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言語에 대한 그의 格別한 관심에도 原因이 있겠지만, '言語의 墮落(linguistic corruption)'이 곧 '道德의 墮落(moral corruption)'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言語조차 淨化되지 못한 人間은 그 道德性이나 人間性까지도 墮落해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Swift 作品에선 ironical하게도 그가 가장 강한 반발을 보였던 그런 linguistic corruption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아 初期作品인 A Tale of a Tub이나 The Battle of the Books는 言語에 관한 essay가 발표된 1710-2년 경보다 6~8년 앞서 나온 것들이다. 그러나 작품구상과 言語에 관한 essay나 article 따위의 思想은 同時에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피상적으로 그의 作品들을 자칫 잘못보면 Swift가 갖고 있던 言語觀을 오해할 수도 있다. 言語構造가 반드시 그 作家의 思想構造와 곧바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이 Swift's Satire의 uncertainty 또는 complexity라고 할 수 있다. Smith도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다.

...Swift in 1696-97 may have been worrying about the corruption of English, but in *Tale* he loves corrupting it; this is one of the paradoxes that make the satire so difficult.¹¹

이런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Swift는 유독 言語의 constitutive한 性格보다는 오히려 instrumental한 役割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요인이 Swift를 詩人으

9) *ibid.*, p.36.

10) A.L. Rowse, *Jonathan Swift*(New York, 1975), p.14.

11) Frederik N. Smith, *Language and Reality in Swift's A Tale of a Tub*,-(Columbus, 1979), pp. 27-28.

로 보다는 散文作家, 그것도 Satirical prose writer로서 가장 적합하게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 아롱든 그를 言語의 파괴자나 타락시키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의 satire를 보고 그가 misanthropist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政治·宗教·文學·人間性 등에서 그가 신랄한 諷刺를 가했다는 것은 그 자신이 누구보다도 英國의 政治·宗教·文學·人間性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는 것과 일치한다. 그의 作品표면에 나타난 강한 paradox, irony 그리고 parody 등을 파헤치고 보면 그 속에 그의 참 의도를 알 수 있다.

“Perhaps I may allow, the Dean
 “Had too much Satyr in his Vein;
 “And seem’d determin’d not to starve it,
 “Because no Age could more deserve it.
 “Yet, Malice never was his Aim;
 “He lash’d the Vice but spar’d the Name.
 “No Individual could resent,
 “Where Thousands equally were meant.
 “His Satyr points at no Defect,
 “But what all Mortals may correct;
 “For he abhorr’d that senseless Tribe,
 “Who call it Humour when they jibe:
 “He spar’d a Hump or crooked Nose,
 “Whose Owners set not up for Beaux.¹²⁾

마찬가지로 Swift는 Wordplay를 통하여 當時에 그가 지적한 여러 형태의 言語의 墮落을 諷刺하고 Standard English의 必要性을 強調하고 있는 동시에 思想의 매개체인 言語를 다양하게 이용하여 자신 특유의 Satire 效果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각도에서 그의 Word-play에 대한 중요한 意味를 찾을 수가 있다.

III. NEOLOGISM

Swift가 지적했던 언어의 갖가지 오류들은 실지로 Swift 자신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neologism, pun, cliché, slang,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중에서도 Swift가 Letter to a young Clergyman~the English Tongue에서 ‘new conceited words’라고 표현한 neologism이 가장 Swift의 뛰어난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다.

新語라는 것은 一般적으로 사용되는 用語가 아니기 때문에 그 意味는 制限的으로 主觀的이 되고, 따라서 그 眞意를 모르면 외사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문체가 있는 반면, 역으로 그 效果는 명백한 用語에 비해 매우 效果的이 될 것은 分明하다.

Swift의 neologism보다 時期的으로 앞선 Henry Wotton이 *Philosophical Survey of Education, or Moral Architecture*(1639)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서 *The Oxford English Diction-*

12) Swift, *Veses on the Death of Dr. Swift, D.S.P.D.*, in *Jonathan Swift-Selected Prose and Poetry* ed. Edward Rosenheim, (New York, 1959), p.326. Swift의 Satire의 目的과 意圖에 關係선 Cf. Hur Myung Soo, op. cit., pp.87ff.

ry(이후론 OED로 칭함)에 수록된 것들을 살펴보자.¹³⁾

1. manurement [f. MANURE v+-MENT] Cultivation.
2. serenitude [f. SERENE a+-TUDE] Serenity.
3. Washy [f. WASH v+-Y] Lacking body, weak, pale.
4. insinuant [L. insinuant -ent, a/F. insinuant] Insinuating; wheedling; ingratiating.
5. proditorius [prec+ious as if from L. type *prōditōri -us] Traitorous; [perfidinous; (fig) Apt to betray or reveal what is hidden or in the mind.
6. unquietude [OE UNQUIET a+-TUDE] Unquietness.

Wotton이 사용한 新語들은 대개가 manure-, serene-, wash-, (un)quiet-와 같이 語根이 명백하거나, insinuant 같이 Latin語나 佛語에서 빌어오거나, 하여 어미에 적당한 형태를 사용해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wift의 neologism은 좀 더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그의 것은 Wotton이 사용했던 것같이 既存 單語에 suffix를 붙여 만들기도 했지만, 이에 더 나아가서 같은 spelling의 單語에 전혀 다른 figurative 한 意味를 붙여 만드는 경우, Latin語나 Greek語, 佛語에서 빈 語彙의 사용으로 만드는 경우, 그리고 전혀 새로운 단어를 擬聲語나 擬態語 따위를 사용해서 만들어 내는 경우로 구별될 수 있다.

첫째, Suffix를 이용한 것은 verb, adjective, noun에 붙은 것이 대부분이다. 動詞를 이용한 것의 대표적인 것은 [Claim→Claimant¹⁴⁾인데, Claim은 Latin語 Clāmāre(to shout, cry aloud)에서 온 것으로 中世英語에서는 Claimen으로 表記가 되었던 것이다. 17世紀 以前엔 Claim만 辭典에 나타났는데 Johnson의 Dictionary에서야 Claimant가 “He that demands anything, as unjustly withheld from him.”이라 定義되어 있다. OED에는 “One who makes or enters a claim; one who has a claim upon anything”으로 되어 있다.

動詞에 Suffix를 붙여 새로운 단어를 만든 또 다른 예로 [Spargefaction(p.80)을 들 수 있는데, 주로 19世紀에 와서야 Spargefication으로 표현하고 있는 예를 찾아볼 수 있다. Swift는 Sparge[OF. espargier or L. spargere (to sprinkle)+FACTION]의 형태를 택하고 있다.

The Operation was performed by *Spargefaction* in a proper Time of the Moon. The Patient who was to be *pickled*, if it were a House, would infallibly be preserved from all Spiders, Rats, and Weazels; if the Party affected were a Dog, he should be exempt from Mange, and Madness, and Hunger. It also infallibly took away all Scabs and Lice, and scall'd Heads from Children, never hindring the Patient from any Duty, either at Bed or Board. (p.80)

여기의 Pickle은 본문 footnote에 Holy Water를 가리킨다고 설명되어 있다. Pickle을 적당한 時期에 살포(Spargefaction)을 해야되는데 그 대상이 집(House)일 경우 모든 거미나 쥐, 족제비 등에서 구제될 수 있고, 개에 살포하면 읍, 狂犬病, 심지어는 餓死에서도 구제될 수 있는 등 실지로는 만병통치약이나 진배 없다. 이것을 고안해 낸 사람은 바로 Catholic을 상징

13) 여기에 사용된 것은 James A.H. Murray(ed),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Oxford, 1933) 판이다. 여기에 인용된 의미는 필요에 의해 줄여 게재되었다.

14) Swift, *A Tale of a Tub in Jonathan Swift-Selected Prose and Poetry* ed. Edward Rosenheim, JR.(New York, 1959), p.22.

하고 있는 Peter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종교 의식에 의해 Catholic이 마치 여러가지 타락된 것을 모두 구제할 수 있다는 듯이, 또 모든 罪에서 구제시킬 수 있다는듯이 주장하고 있는데에 대한 풍자의 냄새를 느낄 수 있다. 바로 이런데서 Spargefication보다 [sparge+-FACTION(派閥)]의 單語構成으로 보아 Martin(the Church of England), Jack(the Protestant)의 두 형제와 Peter가 벌이고 있는 주도권 다툼을 암시해주는데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sparge의 의미를 갖고 있는 sprinkle과 pickle의 관계로 보면 Catholic이 'sprinkling and pickling faction'이라는 개념이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anter→Bantring(p.21)은 [BANTER v+-ING] 형태를 이루는데 t와 r 사이의 모음 e가 생략되어 Bantring이 되었다. Johnson은 banter를 'barbarous'로 說明했는데 Swift의 *Tatler* N. 230에는 "invented by some pretty fellows; such as banter, bamboozle, country put and kidney,...some of which are now struggling for the vogue"¹⁵⁾라고 했다. Locke도 새로운 단어 형성의 한 예로 banter를 설명하는데 "He that first bought the word *sham, wheedle, or banter* in use, put together as he thought fit those ideas he made it stand for"¹⁶⁾라고 한 것으로 봐서 17世紀末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것 같다. Partridge에 의하면 1688년에는 banter가 Slang으로 간주되다가 18世紀에 들어와서 'harless raillery'의 뜻으로 사용되긴 했으나 Standard English도 된 것은 1800년경이라고 보여진다.¹⁷⁾

OED에는 bantering을 形容詞와 名詞로 구분되어 예를 실었는데 *A Tale of a Tub*에 나온 본문과 다소 다르게 수록하고 있다.¹⁸⁾ OED에는 Wood가 1691년에 집필한 한 작품의 예를 인용했는데 "He...delighted to please himself in a juvenile and bantring way"라고 되어 있어 Bantering과 Bantring의 표기차이에서는 정확성 여부를 가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Bantring을 Swift가 처음 사용했다는 단정은 좀 더 신중을 기할 必要가 있는 듯싶으나 일단 여기서는 Swift가 名詞로는 처음 사용했다는 의미도만 그의 neologism으로 보고자 한다.

'An Apology'의 끝부분에 나오는 본문내용을 보자.

This Polite Word of theirs was first borrowed from the Bullies in White-Fryars, then fell among the Footmen, and at last retired to the Pedants, by whom it is applied as properly to the Productions of Wit, as if I should apply it to Sir Issac Newton's Mathematicks, but if this Bantring as they call it, be so despicable a Thing, whence comes it to pass they have such a perpetual Itch towards it themselves?(pp.20-21)

'This Polite Word'란 Banter를 뜻하고 있는데, 이것은 false Wits들이 Modern Pedants가 Bantring이란 말을 使用하는 것같이 그들 자체와 그들의 'productions of Wit'¹⁹⁾ 역시 경멸스

15) Swift, *Tatler* No. 230, op. cit., p.35.

16) John Locke,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ed. John W. Yolton(New York, 1964), 3.9.7.

17) Eric Partridge, *A Dictionary of Slang and Unconventional English*(London, 1974), p.32.

18) OED에는 *A Tale of a Tub*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If this bantering, as they call it, be so despicable."로 수록했는데 본문에는 If가 if로, bantering이 bantring으로 despicable이 despicable로 나타나고 있어 OED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Cf.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op. cit., VI. 1, p.659.

19) Swift는 *A Tale of a Tub*에서 false Wit와 true Wit의 차이점을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하게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여기서 Persona 역할을 하고 있는 Author 뒤에 숨은 Swift는 當時에 Wits라고 통하던 false Wits들의 허위와 가식을 풍자하고 true Wits들로 하여금 社會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냉정한 눈을 가지고 지켜보기를 격려하고 있다. Cf. David Ward, *Jonathan Swift* (London, 1973), pp.27-28.

런 存在임을 암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Fastidiousity(p.90)는 adjective에 suffix가 붙은 경우인데, 語源이 Latin語의 [fastidiōs —us]와 佛語의 [fastidium—ous]로 보이는데 어미는 Fastidiousness의 -ness로 되는 것이 보통이나 Swift는 17세기에 주로 spirituous→spirituosity, virtuous→virtuosity 등과 같이 -ity로 名詞形化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fastidious는 spirituous나 virtuous에서와 같이 Swift가 단어 자체에 갖는 嫌惡感과 -ity로 말미암아 생기는 名詞形의 單語構造에 대해 갖는 不滿感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본문에 “His Epidemical Diseases being *Fastidiousity*, *Amorphy*, and *Oscitation*; whereas in the present universal Empire of Wit and Learning, there seems but little Matter left for *Instruction*(p.90)”에서도 ‘Amorphy(虛無感)’, ‘Oscitation(不注意)’ 등은 fastidiousity가 갖는 ‘squeamishness(乖復性)’이나 ‘disdainfulness(傲慢感)’ 등의 意味처럼 Swift가 嫌惡하는 것 들임을 알 수 있다. *A Tale of a Tub*은 간략하게 말하자면 ‘宗教와 學問의 타락’에 대한 諷刺라고 할 수 있는데 學問은 특히 Modern Learning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도 當時의 學問에 나타나고 있는 全體病적인 여러 병폐를 설명하면서 Swift가 Fastidiousity를 사용한 의도가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Yeomanry(p.128)는 noun에 suffix가 붙은 예로서 어미 -try에 다소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경우다. Yeoman이 14世紀 中世英語에서 zoman, zuman, zeman, ziman 등으로 표기되었는데 OED에 의하면 zongman, zungman, zengmam zingman의 줄인 형태인 것 같아 youngman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듯하다. 發音도 Swift 때에서야 [yi' mǎn]으로 분명해졌고 요즘은 [yōu' mǎn]으로 발음되고 있다. Yeoman은 중정이나 高官직의 하인이나 시종을 가리키는데, 계급상 seargeant와 groom의 중간, 아니면 squire와 page의 중간쯤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어미인 -try에 있다. OED에선 yeomandry를 “The body of yeomen or small landed proprietors; yeoman collectively” 등으로 설명하였고, 다른 作品의 例에서도 yeomandry, yeomandrie, yemandry, yomandrye등으로 되어 있을 뿐 yeomantry로 된 것은 Swift의 것만 나와 있다.

Swift가 d를 t로 잘못 표기했던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봐야겠는데, 본문에는 “The Clergy, and Gentry, and Yeomantry of this land(pp.127-8)”라고 되어 있다. 言語의 正確性을 중시하던 Swift가 d를 t로 잘못 표기했는지는 없고, 특히 그가 初版 이후에도 여러가지 내용 —apology, footnote 따위—을 첨가시키면서도 yeomantry에 대한 수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의 neologism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듯 하다. 또, Clergy와 Gentry 그리고 Yeomandry의 관계는 모두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암시로 Yeomandry를 Yeomantry로 표현한 듯 싶으나 일단 t에 대한 것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상 예를 든 Claimant, spargefaction, fastidiousity, yeomantry 등은 動詞, 形容詞, 名詞에 語尾가 붙어 名詞形으로 만든 예들이다.

두번째로 形容詞를 superlative形으로 만든 예로는 sedate→sedatest(p.99)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Sedate는 1693년에 Locke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sedatest와 형제는 Swift가 처음 구사했다. 본문에서 “that required the nicest Hand, and sedatest Constitution(pp.99-100)”에서 nicest나 sedatest의 강조는 Hand와 Constitution에 대한 강한 역설적인 조소가 담겨 있다. 이것은 provokingest, profoundest, courteousest 등과 같이 의미도 의미지만 발음상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 예로 Vanessa에게 보낸 Swift의 편지에 “Well, he is the Courteousest Man, and nothing is so fine in the Quality, as to be courteous.”라고 되어 있는데,

Courteousest란 발음만큼이나 복잡한 걸치레 예식을 차리는 사람의 가식을 묘하게도 발음과 의미에서 동시에 Man이 嘲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번째로, 既存의 단어에 새로운 상징적 意味(figurative meaning)를 넣어 使用하는 경우이다.

...Disputants being for the most part like unequal Scales, where the Gravity of one Side advances the Lightness of the Other, and causes it to fly up and kick the Beam; So it happened here, that the Weight of Martin's Argument exalted Jack's Levity, and made him fly out and spurn against his Brother's Moderation.(p.100)

주로 物理學에서 사용되던 Levity와 Gravity가 重量의 輕重을 의미하는 데에서 나아가서 Martin과 Jack을 묘사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the Gravity of one Side'와 'the Lightness of the Other'의 관계는 'the Weight of Martin's'와 'Jack's Levity'의 관계와 일치한다. 요컨대, Gravity: Lightness=Weight: Levity의 등식이 성립된다고 보겠다.

16世紀頃부터 醫藥에서 사용되는 Abortion(p.145)이 "a failure of aim or promise"라는 figurative的인 意味를 갖고 쓰인 것은 Swift에 의해서인데 마지막 The Conclusion 첫머리 내용을 보면 "Going too long is a Cause of Abortion as effectual, tho' not so frequent, as Going too short; and holds true especially in the Labors of the Brain.(p.145)"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심한 것도 지나치게 모자란 것만큼이나 狼狽를 招來하게 된다고 逆說하고 있다. Abortion은 원래 Latin語의 abortio(premature delivery; miscarriage)에서 16世紀頃 導入되어 주로 流産이나 早産이란 意味로만 사용되었던 것이다. 본문에서도 'Going too long'은 胎兒가 너무 成熟되고 있음을, 'Going too short'는 早産되고 있음을 意味하기도 한다.

Astride(p.120)의 경우도 Swift가 figurative meaning을 붙여 처음 사용한 것으로 OED에 인용되어 있다. "But when a Man's Fancy gets astride on his Reason, when Imagination is at Cuffs with the Senses, and common Understanding, as well as common Sense, is Kickt out of Doors; (pp.120-1)" 본문의 astride는 Butler의 'Hudibras II. ii 764에서 "Does not Whore of Babilon ride/Upon her horned Beast astride?"라고 사용한 것으로 보아 17世紀에도 使用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의미상 'with one leg on each side'의 뜻으로 주로 말따위의 동물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Swift는 幻相이 理性에 'extending or stretching over' 된다는 意味로 使用하고 있다.

다음으로 'separate Maintenance(p.88)'는 Defoe의 Colonel Jack(1722)의 "She demanded a separate Maintenance.(211)"가 OED에 인용된 것으로 봐서 Swift가 A Tale of a Tub에 사용한 것이 처음인 듯싶다.

In copying the Will, they had met another Precept against Whoring, Divorce, and separate Maintenance; Upon which, their next Work was to discard their Concubines, and send for their Wives.(p.88)

여기서의 separate Maintenance는 'support given by a husband to a wife when the parties are separated'의 뜻을 갖는다. 유언장에 나타난 Whoring, Divorce, and Separate Maintenance의 禁忌事項은 세 형제를 가리키는 'The Church of England', 'the Catholic', 그리고 'the Protestant'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타락상을 Swift는 꼬집고 있다. 遺産으로 남겨준 Coat를 얻

기 위한(종교적인 주도권을 상징) 유언에 나타난 이러한 사항이 Swift 눈에는 이미 세 형제가 다 어기고 있으며 따라서 資格을 갖춘 兄弟, 즉 宗教는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넷째로, Latin, Greek, French 등의 外來語에서 導入된 경우다.

Æolist(p.108)는 Greek神話에서 바람의 神인 Aeolus(*Αἰολος*)에다 -ist를 붙여 Swift가 만들어 낸 것으로 “All Pretenders to Inspiration whatsoever(p.107)”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OED에는 “A pretender to inspiration or spiritual regeneration”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Upon these Reasons, and others of equal Weight the Wise Æolists, affirm the Gift of BELCHING, to be the noblest Act of a Rational Creature. To cultivate which Art, and render it more serviceable to Mankind, they made Use of several Methods. At certain Seasons of the Year, you might behold the Priests amongst them in vast Numbers, with their Mouths gaping wide against a Storm. (pp.108-9)

Æolist가 belching, storm 등과 갖는 연관성을 보자. Æolist들에게서 볼 수 있는 Syllogism을 보면 모든 學問, 더 나아가서는 모든 思想과 行動이 Wind에서 規範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ords are but Wind;
and Learning is nothing but Words;
Ergo, Learning is nothing but Wind. (p.109)

이들이 중요시하는 wind는 *A Tale of a Tub*에서는 상당히 광범위한 단어들과 연관되어 사용되고 있다. 宗教的인 用語로는 Inspiration, Spirit, Breath(p.107) 등으로, 科學的인 用語로는 Effluvium(p.111), Eructation(p.113)으로 low colloquial로선 gust, belch, storm(pp.108-9)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Swift는 宗教的이고 非宗教的인 用語를 뒤섞어 씌으로써 순간적이고도 煽動的인 宗教人의 모순과 타락을 풍자하고 있다. 本文에서도 바람을 가득 물고서 Æolist들은 聖職者에게도 영향을 주어 煽動的인 說教를 하도록 유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들이 理性的 動物의 가장 崇高한 행위로 보고 있는 BELCHING은 Partridge에 의하면²⁰⁾ 19世紀 中葉까지 Vulgarism을 면치 못하고 ‘eructate’의 意味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 Wise (Æolists), noblest(Act), Rational(Creature)에서 wise, noble, rational이 갖는 의미는 Æolists를 Pretenders로 바꾸어 놓고 보면 그의 paradox를 금방 알 수 있다.

한편 Swift는 wind에 대한 다른 명칭으로 Spiritus, Animus, Afflatus, Anima를 들었는데 이것들은 각각 Latin語의 Spirītus(a breath; breeze), ānīmus(soul; heart; feeling), afflātus(a breeze, blast, breath), ānīma(air; life)에서 온 것들이다.²¹⁾

Opus Magnum(p.92)은 ‘the conversion of baser metals into gold’의 의미로 OED에서는 Swift가 처음 도입한 것으로 예를 들고 있다. 또 ‘Nota Bene(Mark-well)’에서 온 *bonae notae* (p.52)와 ‘something to be observed’의 뜻을 가진 Observanda(p.106)등이 Latin語에서 Swift가 導入한 것들이다. Greek語론 앞에 설명이 되었던 Amorphy(p.90)가 있는데 형용사형인 Amorphous는 1710년까지도 없었고 20~30年代에서야 나타난 것 같다. 이 語源을 佛語의 amor-

20) Eric Partridge, op. cit., p.810.

21) 여기에서 인용한 사건은 Charlton T. Lewis & Charles Short, *A Latin Dictionary*, (Oxford, 1966)인데 여기서는 필요에 의해 의미를 간략히 줄여 기재했다.

phic에서 왔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미 그때엔 佛語와 Greek語가 모두 같은 어휘를 갖고 있었다.

佛語에서 온 것으로는 *Briguing*(p.50)이 특이한 것인데 OED에는 두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18세기 초반 佛語의 *brigue*(*intrigue; faction*)에서 導入되었는지 아니면 Latin語 *briga*(*strife; quarrel*)를 14~15世紀頃に 導入한 것을 그대로 Swift가 다시 쓰고 있는지 명확하게 기재는 되지 않고 있지만 아뭏든 佛語의 색채는 띠고 있다.

본문 "...when our Adversaries by Briguing and Caballing, have caused so universal a Defection from us"에서 *Adversaries*(敵), *Briguing*(派黨), *Caballing*(陰謀), *Defection*(脫黨變節)의 각기 단어 첫머리 글자의 배열은 ABCD로 되어있다. 이것은 점차 단어의 의미가 A→D로 가면서 더 깊어지고 있는 점도 우연은 결코 아니다. 4개의 단어와 *Briguing*이 갖은 *harmny*는 Swift가 보여준 또 하나의 技巧라 하겠다.

다섯째로,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경우다. "*Pray Sir, says Peter, eat your Vittles and leave off your Impertinence*(p.85)"에서 *Vittles*는 *Victuals*(*food; Supplies*)를 發音대로 적은 表記인데 'Polite Conversation'에서 *coodn't, woodn't* 따위에 대한 Swift의 불만과 일치하는 것이다. 주로 文語體에선 "and would not allow his Brothers a Drop of *Drink* to their *Victuals*(p.116)", "eat his *Victuals like a Christian*(p.136)"에서처럼 *Victuals*로 표기하고 있는데 반해서 會話體인 본문에선 유독 *Vittles*로 표기하고 있다. 이것이 물론 *low colloquialism*, 즉 *Vulgarism*을 의미하고 따라서 *Peter*의 그럴듯한 主張이 詭辯이며 僞善임을 Swift는 暗示하고 있는 것이다.

Victuals→*Vittles* 형태는 오늘날의 會話體에서 *want to*→*wanna*, *going to*→*gonna*등으로 表記하는 것과 비슷한 예라 하겠는데 오늘날 Swift가 있다면 그의 作品엔 *tree*→*churee*, *international*→*inner national*, *film*→*fyum*²²⁾ 등의 기묘한 單語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發音의 묘미를 살려 독특한 新語를 만들어 낸 경우는 *Gulliver's Travels*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첫번째의 여행지인 *Lilliput*는 *little*을, 두번째인 *Brobdingnag*는 *Broad*를, 세번째 여행지 중의 하나인 *Glubbudrib*은 *Grub Street*를, 마지막 여행지인 *Houyhnhnm*은 *whinny*²³⁾를 자기 연상시켜 준다. Swift의 *persona*인 *Gulliver*도 *Gullible*의 의미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IV. PUN

Swift의 *Satire*는 word 하나하나에 숨겨진 意味를 정확히 把握해야만 된다. 다시 말하자면

22) 특히 *international inner national*의 경우, Swift가 오늘날의 국제연합(UN)에 대해서 대의 명분은 國際關係의 公益을 우선한다고 하고 실상은 自國의 利益을 추구하는 모습을 풍자한다고 가정하자. 한 국가의 원수가 UN총회에서 "I'm strongly concerned with the *international welfare*"라고 演說하는 내용에서 Swift는 *international* 대신 發音대로 *inner national*로 표기하여 그 나름의 효과를 얻었을 것이다.

23) *Houyhnhnm*(말 모양을 한 理性을 갖춘 동물)이 *Gulliver*에게 몸짓을 할 때 내는 'Hhuun, Hhuun'이란 소리에서도 연관성을 찾을 수 있으나, 말울음소리인 *whinny*와 가장계 연상된다. 뒤에 붙은 *-hnm*의 발음은 *hymn*을 연상시키는데 이것은 理性을 갖춘 동물의 모습이 비록 말(馬) 형태를 갖었으나 인간의 형태를 갖춘 잔인하고 비열한 *Yahoo*의 말(言)보다 숭고하고 성스럽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Cf. *Gulliver's Travels* ed. Robert A. Greenberg(New York, 1961), p.198.

皮相的인 意味만으로는 Swift가 말하고자 하는 眞意를 완전히 理解할 수가 없다. neologims 은 그것을 만들어낸 作者의 意圖를 모르면 차라리 그 단어에 대한 理解가 포기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지만 pun의 경우는 표면에 나타나는 皮相的인 意味 把握으로만 만족해야 된다. 특히 *A Tale of a Tub*에서 사용되고 있는 pun의 효과는 當時에 쓰이던 slang이나 cant따위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理解도 전제되어야 할 必要가 있다.

pun에 대해서 Arthur Koestler는 “two strings of thought tied by an acoustic knot”²⁴⁾라고 定義하고 있다. 이것은 크게 나누어서 1) 단어가 갖고 있는 double meaning을 巧妙히 이용하는 것, 2) polysyllable에 속한 단어를 따로 해석하는 것, 3) 單語와 事物 또는 單語와 事件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째, 한 단어에 두가지 意味가 있는 경우는 앞장에서 언급한 바 있는 gravity(pp.100, 47)도 포함된다. “Which are also Bodies of much Weight and Gravity, as it is manifest from those deep Impressions they make and leave upon us(p.47)”에서의 Gravity는 肉身의(또는 事物)의 ‘무거움(heaviness)’를 의미함과 동시에 ‘deep Impressions’에서처럼 ‘진지함, 또는 심오함(seriousness; profound)’를 암시하고 있다.

A Person with good Eyes may see to the Bottom of the deepest, provided any Water be there; and that often, when there is nothing in the World at the Bottom, besides Dryness and Dirt, tho' it be but a Yard and half under Ground, it shall pass, however, for wondrous Deep, upon no wiser a Reason than Because it is wondrous Dark. (p.147)

여기에서 Deep과 Dark의 관계는 Dryness와 Dirt의 관계와 같이 놓고 있다. ‘A Person with good Eyes’는 ‘a true Wit’를 의미하고 Wells는 作品들을 뜻하고 있다. 眞理, 또는 價値(Water)가 있는 作品(well)과, 無意味(Dryness)하거나 오히려 해로운(Dirt) 作品(well)과의 차이를 잘 비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Dryness와 Dirt가 오히려 어두워서(Dark) 보이지 않자 심오한(Deep) 作品(Deep well)이라고 통하는 모순을 Swift는 예리하게 諷刺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난해한 단어들을 늘어놓고 심오한 作品인양 늘어놓는 作家들에 대한 화살이기도 하다.

Wisdom is a Hen, whose Cackling we must value and consider, because it is attended withan Egg; But then, lastly, 'tis a Nut, which unless you chuse with Judgment, may cost you a Tooth, and Pay you with nothing but a Worm. (p.51)

닭이 알을 낳을 때 내는 소리의 뜻을 가진 Cackling이 false Wit를 풍자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Partridge에 의하면 當時에 Egg의 뜻으로 ‘Cackling fart’라는 Slang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닭이 꼬꼬댁거리며 알을 낳는다면 false Wit는 ‘fart(방귀)’를 꾸면서 내는 것은 결국 ‘excrement(배설물)’ 밖에는 없을 것이다.

Jack had not only calculated the first Revolution of his Brain so prudently, as to give Rise to that Epidemick Sect of Æolists, but succeeding also into a new and strange Variety of Conceptions...(p.134)

머리의 ‘회전(spining)’을 의미하고 있는 Revolution은 Jack이 ‘완전한 변화(Complete changes)’ 즉, Aelist로 변모해 가고 있음을 동시에 나타내 주고 있다. Swift가 표면상으론

24) Arthur Koestler, *The Act of Creation*(New York, 1964), p.65.

Protestant를 상징하는 Jack에 대해서 가장 辛辣한 諷刺를 보여주고 있는 듯 한데, 여기서도 Jack이 선동적이고 일지적인 熱情에 사로잡히는 pretenders 중의 하나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Visions(pp.119, 120)는 Latin語의 Visiō(the act of seeing; sight)에서 왔던가 아니면 古代佛語의 vision에서 왔는데 Old Irish에선 véda(know), Véda(h(knowledge))와도 연관성을 갖는다. 따라서 'seeing'이라는 평범한 意味 외에도 'the art of seeing Things invisible'이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다.

Vessel(p.46)은 흔히 생각되는 'barrel; cask'라는 의미를 갖지만 'human body'를 意味물 나타내기도 하는데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Now, the first of these Oratorical Machines in Place as well as Dignity, is the *Pulpit*. Of *Pulpits* there are in this Island several sorts; but I esteem only That made of Timber from the *Sylva Caledonia*, which agrees very well with our Climate. If it be upon its Decay, 'tis the better, both for Conveyance of Sound, and for other Reasons to be mentioned by and by. The Degree of Perfection in Shape and Size, I take to consist, in being extremely narrow, with little Ornament, and best of all without a Cover; (for by ancient Rule, it ought to be the only uncover'd *Vessel* in every Assembly where it is rightfully used) by which means, from its near Resemblance to a Pillory, it will ever have a mighty Influence on human Ears. (p.46)

의회에서 演說을 하거나, 說敎者が 설교를 할 때, 청중들의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끝까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Machine 중 하나로 pulpit이 소개되고 있다. 議會에서 演說하는 사람 외엔 모두가 할 일없이 잠만 자고, 또 다른 사람이 演說하면 먼저 단에 섰던 사람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사람이 잠을 자는(they have long Talkt, whilst others Slept, so now they may Sleep as long whilst others Talk, p.45) 의회의 풍속도를 먼저 소개하고 이 문장이 뒤에 연결된다. 說敎者에게 pulpit이 사용될 때는 罪囚에게 씌우던 관(Pillory)로 비유되고 있다.

여기에서 이텔릭체의 *Vessel*은 cover가 없는 cask, 즉 pulpit을 뜻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人間의 肉體를 가리키고 있다.²⁵⁾ pulpit은 기후에 적합한 *Sylva Caledonia* 產 木材로 만든 것이 가장 좋으며, 그것이 부패하면 소리의 전달이 훨씬 용이해지고, 장식이 없이 뚜껑이 없는 단이 가장 좋다는 말에서 우리는 기후에 적합한 *Sylva Caledonia* 產 木材의 pulpit은 바로 英國에 맞도록 고쳐놓은 'the Church of England'을 의미하고, pulpit이 쉬는다는 것은 宗教의 타락을, 소리의 전달이 용이하다는 것은 말만 번드레하고 요란스럽지만 眞實이 없는 說敎를, 차라리 아무런 장식 없이 좁은 뚜껑이 없는 것이 듣는 이의 귀에 감명을 준다는 것은 설명이 없어도 이해가 충분히 되리라 믿는다. 여기에서 Swift의 persona인 Author(혹은 Storyteller)는 'the Church of England'의 옹호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but I esteem only That made of Timber from the *Sylva Caledonia*) 사실은 그 종교의 가치와 부패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5) 聖書에는 人間을 神의 도구로 창조되어 사용된다는 의미에서 피조물에 대한 개념을 찾는다. 따라서 그 중에서 神의 必要에 의해서 選擇받은 사람을 Chosen Vessel이라고 하는데, Swift는 이러한 개념으로 Vessel을 사용하고 있다. "and for that Reason, with great Property of Speech, did usually call their Bodies, their *Vessels*." (p.109)"

Hemp(p.70)는 Partridge에 의하면 'a candidate for the gallow'라는 의미를 갖는 slang으로 사용되었는데 주로 18世紀頃엔 hemp는 회화체로 hemp는 다소 Standard English로 변모해 가고 있었던 것 같다. hempen bridle은 'A ship's rope or rigging'이란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Hemp도 교수형에 사용되는 밧줄(hangman's rope)로 사용되고 있는 듯 하다. 또다른 의미인 'hashish(大麻)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when our Adversaries by Briguing and Caballing(p.50)"에서 Caballing은 원래의 의미인 'plotting'과 'mystery of cabala'의 뜻도 있는데, CABAC은 1672년 英國의 5人組 ministry의 첫머리 글자에서 따온 것이기도 하다. 즉 Clifford, Arlington, Buckingham, Ashley, 그리고 Lauderdale 등을 말한다.²⁶⁾

"Of such great Emolument, is a Tincture of this Vapour, which the World calls Madness, that without its Help, the World would not only be deprived of those two great Blessings, Conquests and Systems...(p.119)"에서 Vapour는 'gas; steam'의 뜻 외에도 'an idle fancy'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Vapour, 즉 fancy로 인해서 Madness 상태로 돌입하게 되고 그래서 Conquest나 System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Now, altho' these Vapours are of as various Original, as those of the Skies, yet the Crop they produce, differ[s] both in Kind and Degree, meerly according to the Soil(p.115)"에서 수증기가 일어나는 원인은 많지만 그 토양에 따라 종류나 크기에 많은 차이의 結實을 맺는다는 말은 결국 모든 fancy(또는 madness)가 생겨나는 원인은 다르지만 그 인간의 바탕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틀리다는 말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性的인 意味가 포함된 것들도 있는데, 형태나 作動되는 역할을 이용하여 주로 男性의 penis를 상징하는 것들이다.

What secret Wheel, what hidden Spring could put into Motion so wonderful an Engine? It was afterwards discovered, that the Movement of this whole Machine had been directed by an absent Female, whose Eyes had raised a Protuberancy, and before Emission, she was removed into an Enemy's Country.(p.116)

戰爭이란 때명계 아래 숨은 것이 女子때문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Swift는 Engine이나 Machine이 은연중에 戰爭을 일으킨 'Harry the Great of France'의 男根을 暗示해주고 있다.

"He would of a sudden, with one Hand out with his Gear(p.138)"에서의 gear는 Partridge에 의하면 'male or female genitalia'라는 의미를 갖는 slang이었다. 사실상 狂信的으로 의골수가 된 信者(Jack을 의미)의 奇異한 행동을 보고 물려드는 구경꾼들에게 한손으론 그의 gear 즉, penis를 꺼내 그들 눈에 放尿하고 진흙을 뿌리는(and piss full in their Eyes, and with the other, all to bespatter them with Mud) 행위도 서슴치 않는 'madness'를 보여주고 있다.

Penis의 모양을 이용한 것으로 우리는 pen, pencil, peninsula, penis, pennon 등에서 같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²⁷⁾ 이러한 의미를 갖는 pen은 반면에 文人의 무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26) Eric Partridge, op. cit., p.118.

27) pen과 pencil은 'the male member'의 뜻을 갖는 slang으로 쓰였다. 특히 'pencil and tassel'은 'boy's penis and scrotum'이라고 알려졌는데 pen이나 pencil 따위가 남자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이미 16세기 후반부터인 것 같다. Cf.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op. cit., p.616.

여기에 담긴 뜻은 매우 미묘하게 나타나고 있다.

“When every little Would-be-wit takes Pen in hand, 'tis in vain to enter the Lists, & C. (p.38)”

Would-be-wit는 결국 false wit를 가리키고 있는데 손에 쥔 Pen이 은연중에 penis를 암시하여 풍자의 極을 달린다고 하겠다. 이것은 다음에 언급할 polysyllable의 penetrate와도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둘째, polysyllable을 이용하여 동시에 두개의 monosyllable로 분리, 연상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이다. *A Tale of a Tub*의 序文(Preface)에 나오는 예문을 보자.

The Wits of the present Age being so very numerous and penetrating, it seems, the Grandees of Church and State begin to fall under horrible Apprehensions,... That Seamen have a Custom when they meet a Whale, to fling him out an empty Tub, by way of Amusement, to divert him from laying violent Hands upon the Ship. This Parable was immediately mythologiz'd: The Whale was interpreted to be Hobs's Leviathan, which tosses and plays with all other Schemes of Religion and Government, where of a great many are hollow, and dry, and empty, and noisy, and wooden, and given to Rotation. (p. 34)

이것은 *A Tale of a Tub*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바다에서 漁夫가 고래를 만나면 懷柔하기 위해 통(Tub)을 던진다는 parable에서 題名을 내왔는데, Swift는 이런 비유를 이용해서 敎會나 政界의 高官들이 많은 Wit들에 의한 비판 공격을 두려워하여 회유책을 써야하는데 그것에 대한 제안으로 *A Tale of a Tub*을 썼다는 irony를 보여준다. 물론 그런 제안들로 Swift는 즐거운 game을 즐기고 있다.

본문에서 penetrating을 보면 PEN-etrating의 PEN을 찾아낼 수 있다. 'keen or sharp'의 뜻을 가진 penetrating은 그 무기가 PEN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PEN으로 Ship(즉 Church나 State)의 구멍들(Holes in the weak side of Religion and Government)을 마구 쏘서대는 Wits의 行動을 그림처럼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present Wits에 있다. 當時의 모든 Wits가 numerous와 penetrating으로 수식되어 있는데 Swift는 true Wit가 많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 當時 英國의 Wits를 9,743명으로 보고 있지만²⁸⁾ 그들이 모두 true Wits는 아니며 따라서 present Wits가 모두 penetrating한 것은 아니다. 그 중에 false Wits가 섞여있는데 그들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은 바로 penis의 의미를 담은 PEN이 설명해주고 있다.

마지막의 Rotation에서 Rota는 1659년에 設立되어 政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Rota Club을 의미하고 있다²⁹⁾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Rotation의 사용에 대한 이해가 쉬워질 것이다.

Wisdom is a Fox, who after long hunting, will at last cost you the Pains to dig out: 'Tis a Chess, which by now much the richer, has the thicker, the homelier, and the

28) It is intended that a large Academy be erected, capable of containing nine thousand seven hundred forty and three Persons; which by modest Computation is reckoned to be pretty near the current Number of Wits in this Island. (p.35)

29) Smith, op. cit., p.39.

courser Coat; and whereof to a judicious Pa[la+e, the *Maggots* are the best....But then, lastly, 'tis a *Nut*, which unless you chuse with Judgment, [may cost you a Tooth, and pay you with nothing but a *Worm*. In consequence of these momentous Truths, the *Grubaeen* Sages have always chosen to convey their Precepts and their Arts, shut up within the Vehicles of Types and Fables...(p.51)

이것은 Cackling을 설명할 때 언급이 되었던 곳인데 Grubaeen Sages가 구체적으로 false Wits 역할을 하고 있다. Grubaeen은 OED에 의하면 Swift가 만들어낸 neologism이기도 한데, 여기서의 Grub은 Grub Street를 말한다. 지금은 London의 Milton Street로 알려져 있는데 Guildhall 北部에 위치하고 있고 당시엔 Moorfields 근교에 있었다. 주로 관습적인 詩·歷史·辭典·翻譯 따위의 作品活動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던 소규모 作家群의 거리였다. grubby가 'filthy or dirty'의 의미를 갖는데 Swift는 이것을 교묘히 이용하여 grubby가 아닌 Grubaeen으로 形容詞를 만들어 Sages를 수식하게 하여 새로운 單語를 만들어 내고 있다. Grubaeen Sages는 앞의 Maggot나 Worm과 좋은 harmony를 이루고 있다. 즉 false Wits인 Grubaeen Sages는 filthy and dirty한 Maggot or Worm라는(False Wits and Grubaeen Sages are filthy, dirty Maggots and Worms.) 관계가 성립된다. 또 'maggot(구더기)'에는 'whim' 또는 'fancy'의 의미도 같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 事物과 그 명칭의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주로 文章의 context를 理解해야 뜻이 명백해 진다.

But to return to *Madness*. It is certain, that according to the System I have above deduced; every *Species* thereof proceeds from a Redundancy of *Vapours*; therefore, as some kinds of *Phrenzy* give double Strength to the Sinews, so there are of other *Species*, which add Vigor, and Life, and Spirits to the Brain...(p.123)

여기서 'return to *Madness*'를 사용해서 Swift는 두가지 점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첫째, Modern이 'the subject of *Madness*' 즉, madness에 관한 주제로 되돌아 가서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意味와 둘째, Modern 그 자체가 'the condition of madness' 즉, madness 상태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V. CONCLUSION

Swift의 Satire를 研究하는데는 대체적으로 2가지의 基本方向이 있다 하겠다. 그것은 첫째 17世紀에서 18세기에 이르는 英國의 政治·宗敎·學問的인 歷史的 背景에 대한 것으로, 둘째 그의 Satire가 表現되고 있는 言語와 表現上의 技巧에 관한 것이다.

모든 諷刺文學에도 마찬가지로이겠지만 어떤 Satire에든 그 諷刺의 대상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은 제 1차적으로 그 作家가 살던 時代에서 찾아볼 수 있기 마련이므로 Historical Approach가 必要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言語上의 여러가지 技巧, 즉 wordplay와 그것을 表現하는데 있어서의 多樣한 技巧을 正確히 파악하지 못하면 作家의 眞意를 理解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불투명하고 모호한 상태에서 일부만 理解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특히 新語(neologism)나 pun에 대한 Swift의 使用은 當時에 通用되던 low colloquialism이나 slang등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研究도 병행되어야만 한다.

18世紀初에 이르러서 英語는 어떤 確固한 틀을 갖는 Standard English가 되어 가는 過度期的인 時代에 접어들게 되고 英語에 대한 관심은 많은 學者나 文人들에 의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1755년 Johnson의 Dictionary가 나오기 전까진 누구 하나 英語의 正統性이나 권위를 갖고 Standard English라는 概念을 주장할 만한 人物이 없었다. 따라서 산발적이고 국부적인 言語에 관한 essay들이 發表되었을 뿐이었다. Lord Chesterfield나 Jonathan Swift가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주도적인 役割을 한 인물들인데, 그들은 주로 言語에 대한 체계적인 理論보다는 方言이나 非標準語, 그리고 Vulgarism에 대한 지적과 洗鍊되고 敎樣있는 言語로서의 英語의 發展에 관심을 두었다.

특히 Swift는 *The Tatler No. 230(1710)*, *Letter to a Young Clergyman The Proposal for Correcting, Improving and Ascertaining the English Tongue(1712)*, *Polite Conversation(1738)* 등을 통하여 當時에 사용되던 英語가 갖는 問題點들을 5가지 정도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polysyllable의 dignity결여(名詞의 경우).

둘째, Concracted verb의 使用.

셋째, New word와 外來語의 氾濫.

넷째, Slang, cant, 등 Vulgarism.

다섯째, low dialects에 대한 것들이다.

이런 linguistic corruption은 그가 1710년 *The Tatler*의 230號에 실었던 書簡文 形式의 essay에서 자신이 얼마전에 받았다고 주장하는 便紙를 인용·소개한 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 當時의 言語에 관한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Sir,

I cou'dn't get the things you sent for all about Town. —I thot to ha' come down myself, and then I'd ha' bro't 'um; but I ha'n't don't, and I believe I can't do't, that's pozz.—Tom begins to g'imself airs because he's going with the plenipo's.—'Tis said, the French King will bamboozl' us agen, which causes many speculations. The Jacks, and others of that kidney, are very uppish, and alert upon't, as you may see by their phizz's. —Will Hazzard has got the hipps, having lost to the tune of five hundr'd pound, tho he understands play very well, nobody better. He has promis't me upon rep, to leave off play; but you know 'tis a weakness he's too apt to give into, tho he has as much wit as any man, nobody more. He has lain incog ever since. —The mobb's [very quiet with us now. — I believe you thot I banter'd you in my last like a country put. — I sha'n't leave Town this month, & C.³⁰⁾

또 이러한 問題點들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單語의 表記, 語源, 品位, 發音에 대한 Swift의 관심이라고 보겠다. 이런 言語에 대한 관심이 그의 作品에선 wordplay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의 wordplay는 크게 neologism과 pun의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neologism은 기존단어에 suffix등을 사용해서 만든 것, Latin語 등의 外來語를 이용한 것, 어떤 평범한 단어에 figurative meaning을 獨自적으로 사용한 것, 疑聲語나 疑態語를 이용하여 전혀 獨創적으로 만들어낸 것, 發音을 이용한 것 등으로 구분된다.

30) Swift, *The Tatler No. 230(1710)*, op. cit., p.34.

pun은 단어 자체에 포함된 두가지의 意味를 교묘하게 적절히 이용한 것, polysyllable을 이용하여 그 속에 포함된 語根이나 monosyllable을 따로 떼어 해석해 내는 것, 事物과 그 명칭의 관계를 이용한 것 등으로 나뉘어 진다.

이런 wordplay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자.

첫째, Swift는 言語의 墮落을 道德의 墮落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neologism이나 pun은 Swift가 嫌惡하거나 忌避할만한 意味를 갖고 있는 單語들로 구성되었고, 또 그것들의 意味만큼이나 嫌惡의 대상이 되는 人物을 諷刺할 때 사용되고 있다.

둘째, 그의 wordplay에 나타나는 單語들은 Swift가 지적한 linguistic corruption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用例가 많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의 모든 Satire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irony와 parody 性格과 일치하는 데 *A Tale of a Tub*에 나타난 言語의 구사에 특히 잘 나타나 있다.

셋째, wordplay의 使用에 있어서 매우 complexity한 性格을 갖는다. 때론 'real'과 'ideal' 사이의 윤곽이 뚜렷히 드러나지 않는 uncertainty의 특징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의 言語構造와 思想構造 사이의 gap을 이해하는 複雜한 問題와도 연관성을 갖는다.

넷째, 17世紀 以來 言語의 'Constitutive'의인 性格의 高潮와는 달리 Swift의 wordplay는 言語의 'instrumental'의인 役割을 충실히 하고 있다. 따라서 wordplay는 表面的으로 매우 視覺的인 여러가지 表現技法들과 어울려 매우 效果的으로 사용되고 있다. 작품 곳곳에 나타난 capital letter, italic; blank, dash등 여러가지 표현상의 技巧은 주도 讀者들이 作家의 의도를 많은 관심과 주의를 집중하여 관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섯째, Swift의 neologism에는 앞으로 더 자세히 밝혀줘야 할 問題點들이 있다. 예컨대 여기서, 그의 것으로 發表했던 yeomantry의 경우 만약 실지로 Swift d를 t로 잘못 표기하지는 않았겠는가 하는 철자의 正確性에 대한 問題다. 新語라는 概念은 철자 하나에도 意味와 용도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근한 예로 Hobbes의 경우도 Concerning the Mechanical Operation of the Spirit에는 Hobbes's Leviathan으로 제대로 表記되어 있으나 같이 수록된 *A Tale of a Tub*에는 Hobs's Leviathan(p.34)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諷刺하기 위해 Spelling 자체를 틀리게 적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더 많은 研究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footnote도 어느 곳엔 나 + 표시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說明이 빠진 부분도 눈에 띄인다.

끝으로 Swift의 neologism이나 모방이나 하는 문제는 주로 OED와 Smith의 *Language & Reality in A Tale of a Tub*을 근거로 했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옛문헌에 같은 意味로 사용되었을 경우를 完全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問題點을 아울러 밝혀 두며, 그러한 것들이 더 앞으로 연구해야될 과제로 남을 것 같다.

Bibliography

- Baugh, Albert C. *A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1971)
 Blake, N.F. *Non-Standard Language in English Literature*, (André Deutsch, London, 1981)
 Chomsky, Noam, *Cartesian Linguistic*, (Harper & Row, New York, 1960)
 Donoghue, Denis, *Jonathan Swif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Donoghue, Denis, *Jonathan Swift*, (Penguin Books, 1971)
 Ehrenpreis, Irvin, *The Personality of Jonathan Swift*, (Harvard University Press, 1958)
 Greenberg, Robert A., *Gulliver's Travels* (W.W. Norton & Company Inc., New York, 1961)

- Hur Myung Soo, *The Anasyls of Jonathan Swift's Satire in His Prose and Poetry*(Kyung Hee University, Seoul, 1977)
- Klein, Ernest, *A Comprehensive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Elsevier Publishing Co., London, 1967)
- Lewis, Charlton T & Short, Charles, *A Latin Dictionary*(The Clarendon Press, Oxford, 1966)
- Murray, James A.H.(et. al ed.)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The Clarendon Press, Oxford, 1933)
- Partridge, Eric, *A Dictionary of Slang and Unconventional English*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1974)
- Partridge, Eric, *Swift's Polite Conversation*, (Andre' Deutsh, London, 1963) Rosenheim, Edward, Jr., *Jonathan Swift-Selected Prose and Poetry*(Holt, Rinehart & Winston Inc., New York, 1959)
- Rowse, Alfred L., *Jonathan Swift-Selected Prose and Poetry*(Holt, Rinehart & Winston Inc., New York, 1959)
- Rowse, Alfred L., *Jonathan Swift*(Charles Scribner's Sons, New York, 1975)
- Smith, Frederik N., *Language and Reality in Swift's A Tale of a Tub*(OhioState University Press, 1979)
- Stephen, Leslie, *Jonathan Swift*(Harpers & Brothers Publishers, New York, 1882)
- Ward, David, *Jonathan Swift*(Methuen & Co., Ltd., London, 1973)
- Wellek, René & Warren, Austin, *Theory of Literature*(Penguin Books, 1966)

경희대학교 강사